



아함 혜장 스님의 '일한사탑 무진여화(一閼四榻 無塵如畫)' (동예현 소장).

# 획마다 선(禪)이 넘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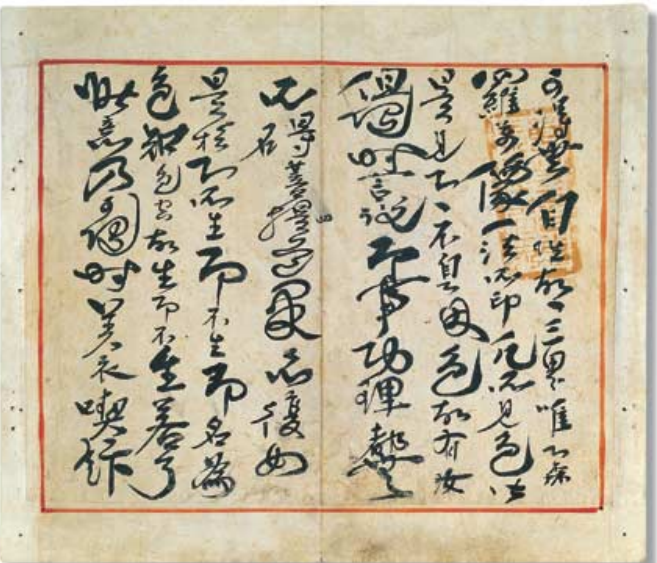
획마다 서려있는 깨달음의 글씨. 바로 선필(禪筆)이다. 그것은 자자는 물론 보는 사람도 상(相)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을 때 그 맛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선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흔히 '글씨는 그 사람이다'고 말하듯이 선승 만큼이나 다양한 필체와 특징을 띠고 있다. 어떤 것은 들쭉 날쭉 제 멋대로 휘갈려 내려가 잘 쓴 것인지만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선승의 글씨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고승들의 서예 작품 98점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서울 예술의전당, 국립청주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고승유묵(高僧遺墨)-경계를 넘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부터 2005년 5월 22일까지 세 곳을 돌며 전시회를 연다. 처음 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좀처럼 외부에서 접하기 힘든 작품들이라 시작 한지 얼마 안됐지만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순회전은 국립청주박물관(10.8-11.30)을 시작으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2005.1.11-2.27)을 거쳐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부처님오신날 기념전(2005.3.23-5.22)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1천5백여년에 이르는 한국 서예의 역사를 선필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필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서예의 주류를 형성했으며, 격조와 개성

**고승유묵展(2005년 5월 22일 까지)**

역대 고승 작품 98점 일반인에 공개  
한국 서예 1천 5백여년의 숨결 조명



서산 대사 휴정 스님의 '정선사기록' (대홍사 소장). (1070-1159)의 필적이 실린 석각 탁본 '해동명적(海東名跡) 3책'도 선보인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02)580-1513, 통도사 성보박물관 (053)382-1001, 국립청주박물관 (043)252-0710

의 필체로 새로운 기초를 이뤘다는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400여년 전 쓰여진 서산 대사(1520-1604)의 글씨 '정선사기록(精選四家錄)'은 깨달음의 경지가 엿보인다. 원래 '정선사기록'은 중국 선문(禪門)의 대표적 4가(家)의 법문을 수록한 책. 핵심 요지는 자심(自心)이 곧 부처임을 알아 심외(心外)에서 따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망상을 떨치고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해탈 수행하며 여러식음을 버릴 때 부처와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사명대사(1544-1610)의 행간에는 엄정함이 서려있다. 특히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모든 서체를 두루 구사했던 혜장 스님(1772-1811)의 '용호절(龍虎帖)' '약봉첩(躍鳳帖)' '인지절(臨池帖)' 등은 당시까지 소회한 다양한 서풍과 서체를 종합적으로 구사한 작품으로 글씨에 대한 관심사와 그 폭을 짐작케 한다. 만해 스님(1879-1944)이 자신의 시를 적어놓은 '만해필첩(萬海筆帖)'의 글씨를 보면 생사를 초월한 듯한 파격미가 느껴진다. 이외에도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지리산 일대의 선승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다산 정약용의 글씨도 전시회에 나온다. 또 김성(711-?), 탄연(1070-1159)의 필적이 실린 석각 탁본 '해동명적(海東名跡) 3책'도 선보인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02)580-1513, 통도사 성보박물관 (053)382-1001, 국립청주박물관 (043)252-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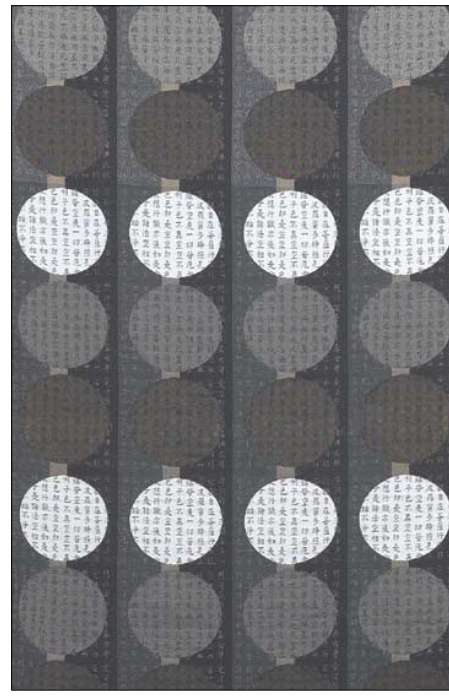
■제 20회 불교미술대전 수상자 발표

## 대상에 어수경씨의 '반야심경'

- 컴퓨터 서체로 경전 글귀 직조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1일 '제 2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공예부문에 출품한 어수경씨(35·인터뷰 14면)의 '반야심경' (사진)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서체를 디자인 한 것. 배경의 원은 염주를 상징하며 자신의 수행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인 <반야심경>이 일상생활속에서 계속된다는 의미로 경전 내용을 연속되는 원형 무늬속에 표현했다. 특히 어씨의 이번 작품은 불경 글씨를 검정, 회색, 흰색 등으로 배색해 직조한 섬유작품으로서 배색 효과가 뛰어나고 직조의 기술역량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최우수상 조각부문에 윤부철 씨의 '연화관음'과 회화부문에 김상용 씨의 '알 수 없는 영역'이 각각 뽑혔다. 또 우수상 회화부문에는 함보경 씨의 '수월관음도', 조각부문에 주매희 씨의 '불심', 공예부문에 문창대씨의 '관세음보살'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불미전에는 회화 108점, 조각 30점, 공예 17점 등 총 15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대상수



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시상식은 11월 3일 열리며, 수상작들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총무원 문화부는 '한국불교미술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10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제 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16일 개막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미술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왼쪽)이 행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관음보살도'를 감상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미술·영화·음악 통한 종교 화합의 장 펼쳐

(사)한국종교교도자협의회는 종교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위해 '제 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술제, 영화제, 음악제 등 3개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10월 16-24일 9일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리는 '미술제'에는 서양화 41점, 한국화 24점, 조각 17점, 공예 9점, 서예 28점, 설치 2점, 관화 2점 등 총 123점을 선보인다. 불교계에서는 고영을 씨의 '극락'을 방문하는 성모님', 이호선 씨의 '금강송과 반가사유상', 이점원 동국대 교수의 '육바라밀' 등 19점이 출품됐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매일 2회씩(1회-19:00, 2회 21:00) 진행되는 '영화제'는 '신부수업'을 개막작으로 시작해 '달마야 놀자', '패션오브크라이스트', '터미널'과 페막작으로 '죽세'를 상영한다.

행사 마지막날 대미를 장식할 '음악제'는 10월 26일 저녁 7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연주회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하유 스님의 '대고 연주', 국악인 오정해씨의 판소리 연주, 삼선승가대의 수화노래, 임마누엘 성기대의 합창, 'The Solist'의 아카펠라 합창, 소프라노 김영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독창 순으로 진행된다. (02)720-8776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02)737-0695 Fax: 02)737-0696 \*법공상 상담합니다\*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별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입니다 ★

1. 신비의 호풍요법 소와미라리 지음, 김연 옮김 신국판 / 240쪽 / 10,000원 관음출판사	2. 한국의 마애불 이태오, 이경희, 김, 사인 유남에 외 신국판 / 496쪽 / 45,000원 대원사	3. 영동구리 부처님 불명지(임명준) 지음 신국판 / 338쪽 / 9,500원 도파인사	4.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희 엮음 4×6판 / 287쪽 / 7,500원 평중당	5. 금강경 강의 남인만 지음, 신원봉 옮김 신국판 / 604쪽 / 20,000원 문예출판사	6. 김교수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김용덕 엮음 / 전 2권 각권 8,000원 도서출판 부활이	7. 바론보의 환단고기 1,2,3 문재연 엮음 / 신국판 각 1권 12,000원 2권 15,000원 3권 15,000원 바론보인	8. 그곳에 스님이 있었네 임효림 지음 신국판 / 296쪽 / 10,000원 비보새	9. 도에 말씀록 오고신, 이경익, 심재열 편역 신국판 / 541쪽 / 15,000원 보문각	10.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해동 스님 지음 신국판 / 1067쪽 / 30,000원 부다기아	11. 법외경 상·하 무비 옮김, 박성근 판서 / 신국판 상 282쪽·하 320쪽 / 각 8,000원 불광출판부	12. 국내 최초 스님들의 불대기 탐구 한국 현대 고승 대진집 삼각형프레스	13. 위빠싸나 수행의 길 가예 스님 엮음 신국판 / 343쪽 / 12,000원 샘이깊은물	14.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지음 신국판 / 92,800원 삼다	15. 마음의 눈 문순정 지음 신국판 / 296쪽 / 10,000원 솔과나무	16. 선 너는 누구나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 288쪽 / 9,900원 여시아문	17.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정길, 김경철, 강영 국배만 편역 / 192쪽 / 15,000원 도서출판 솔바람	18.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엮음 신국판 / 풀러 도판 20컷 / 269원 / 9,000원 부다기아	19. 부처를 만나다 부처를 죽여라 도법 지음 신국판 / 382쪽 / 11,000원 이름다운인연	20. 노스님의 죽음 지복스님 신국판 / 336쪽 / 10,000원 우리출판사	21.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지음 신국판 / 384쪽 / 20,000원 윤주사	22. 수도자에게 주는 글 애월의 길 성철스님 지음 신국판 / 248쪽 / 8,500원 도서출판 장영각	23. 선자들이 사유는 깨달음의 편지 정남 엮음 신국판 / 292쪽 / 10,000원 장승	24. 연명인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유리 염바나 지음, 풍영숙 옮김 신국판 / 240쪽 / 8,900원 지혜의 나무	25. <21세기 지언권장서지> 지 입 플랜드버그 지 / 9의영 역 46배만 번역 / 192쪽 / 15,000원 이름출판사	26. 명상수행의 바다 진재성 역 신국판 / 635쪽 / 23,000원 한국배움터출판부	27. 행복하게 사는 법 아름답게 죽는 법 장재 지음 신국판 / 240쪽 / 8,800원 영광출판사	28. 아이 청담 김영식 지음 / 신국판 352쪽 / 12,000원 화남	29.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1, 2 정인외 3인 지음 / 국배만 번역 282쪽 / 각권 15,000원 휴머니스트	30. 천문학자가 풀어 낸 금강경의 비밀 이시우 지음 / 신국판 348쪽 / 13,000원 도파인사	31. 바깥과 함께 한 내일 대리자 무달리아르 기르, 대성 옮김 신국판 / 384쪽 / 13,000원 참구사	32. 선어삼백적(禪語三百則) 차지석 역 신국판 / 420쪽 / 10,000원 여시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